

중전기기도 컬러화 바람

디지털시대로 들어서면서 중전기시장에도 디자인 바람이 불고 있다. 검정·회색·흰색 등 무채색 일변도의 중전기 색상이 빨강·녹색 등으로 다채로워지고 있다. 중전기기도 흑백에서 컬러로 옷을 바꿔 입고 있다. 더욱이 일부 제품은 베이지색·카키색 등 파스텔톤으로 고급스런 느낌을 주고 있다.

이는 중전기를 생활 가까이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중전기의 중후장대한 특성에 어두운 색깔에서 오는 중압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전기의 컬러화를 주도하는 업체는 LG산전. 이 회사는 차단기·계전기의 제품을 「맥 시리즈」라는 브랜드로 출시하면서 종래의 무채색이 아닌 베이지색·카키색 등 기본색에 초록·주황 등을 조화시켰다. 제품 중에서 기중차단기·진공차단기 등은 보라색이 주조여서 이용자들에게 가전제품같은 느낌마저 갖게 한다.

LG산전은 「맥 시리즈」라는 독자 브랜드로 색채를 기반으로 시장에서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면서 제품 인지도를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일진 역시 대형 중전기인 가스절연 개폐기와 차단기에 연노랑색과 베이지색을 더해 중전기가 주는 무거운 면모를 일신했다.

케이디파워는 최근 출시한 모터컨트롤센터(MCC)에 컬러를 이용, 편의성과 연계시켰다. 제어하는 부하의 종류에 PC는 빨강, 소화전은 파랑, 공조기는 녹색 등으로 다양화한 것.

이외에 크로스티이씨가 외산업체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 패션 감각을 보여주기 위해 무정전 전원장치에 색상을 포함한 디자인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중전기기업체의 한 관계자는 「선진시장에서 중전기의 판매실적은 디자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색과 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선진시장 진입에 나서기 위한 포석」이라고 말했다.

MOF 시험기준 대폭강화

한전은 기술표준원에 MOF(계기용변압변류기) 시험기준 강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번 방침은 MOF가 주차단기 상부에 설치돼 있어 고장이 발생할 경우 수용가 파급사고를 유발

하는 취약설비인데도 수배전설비 가운데 고장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품질 향상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전은 이달중에 관련 자료와 의견을 취합해 KS

(한국표준규격) 개정안을 만들어 빠르면 1월말 기술표준원에 제안할 계획이다.

한전은 작년 10월 검증방법, 상태 판정방법 등 MOF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지침을 제정해 각 사업소에 하달할 정도로 MOF 안전관리 및 성능 제고에 높은 관심을 표명, 이번 KS 시험기준 개정

작업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외관련 한전 배전처 담당자는 "MOF는 고장이 많은 설비이지만 대부분이 수용가 재산이므로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취약분야이다"며 시험 기준 강화의 필요성을 밝혔다.

한전, 대대적 조직 개편

한전은 발전부문간 경쟁에 초점을 맞춰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할 방침이다.

특히 한전은 발전부문 분사를 전제로 기존 수화력사업단을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발전사업단 등 5개 수화력사업단으로 재편키로 했다.

기존 자재본부와 기술본부의 조직과 인력도 5개 수화력사업단에 흡수시켜 사업단별로 독립 운영할 계획이다.

한전은 조만간 별도 독립되는 전력거래소를 통해 5개 수화력사업단과 원자력사업단이 생산한 전력이 주식시장처럼 입찰시장에서 매일 가격과 거

래량이 결정되는 전력거래시장을 모의 가동시켜 전력거래의 관행을 정착할 방침이다.

한전은 오는 1월말까지 조직개편안을 확정된 후 2월에 인사를 단행하고 3월 정기주주총회때 정관 등 규정을 개정, 4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전의 조직개편 방침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법안의 입법화가 지연되는 공백을 줄이고 법통과가 이뤄지는 즉시 경쟁체제 구도로 전환할 수 있는 체제를 사전에 구축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첨단 배전선로 보호협조 프로그램 개발

최신의 배전선로 보호협조 프로그램(KEDPRO 2.0)이 개발됐다.

한전서울지역본부(본부장 이용오)가 개발한 배전선로 보호협조 프로그램은 전국 변전소의 보호계전기와 배전선로 선로정수, 보호기기의 동작특성 곡선, 고압수전 고객소유의 보호계전기 등 1,516종

의 데이터를 내장하고 있으며 새로 출시되는 보호기기에 대한 각종 파라메타를 손쉽게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 이 프로그램은 보호 협조시 가장 중요한 정정 가능여부를 프로그램 스스로 판별하여 선정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변전소와 보호기기간의

협조가능여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곡선 비교 기능과 동작시간 자동판독 기능, 보호계전기 의 복귀시간을 감안한 보호협조 시간차 확인 기능, 실선로 조건에서 보호기기간 동작시간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능,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도움말 기능을 비치하고 있다.

한전서울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배전선로 보호협조 업무는 발전소에서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거쳐 배전선로로 경유하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중 하나로 이번 개발로 실무자들의 시간과 업무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전국배전사업소를 9개 권역으로 나누어 순회

교육을 마쳤으며 전국의 배전사업장에 사용자 설명서와 KEDPRO 2.0을 배포, 배전보호협조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서울지역본부는 전국 배전사업장에서 신개발 KEDPRO 2.0을 활용하면 업무시간 단축으로 인해 절감액이 연간 8억7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광역정전은 물론 일시고장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전은 프로그램의 개발결과를 정리, 국내외 학회지등에 게재하고 영문판으로 제작하여 상용화를 검토하는 한편 해외 전력회사와 보호기기제작업체를 대상으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코스닥 등록 까다로워진다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등록요건이 강화돼 기술력이나 사업성에 인정을 받지 못한 벤처기업들은 앞으로 코스닥시장 등록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한국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벤처기업이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산하기관인 기술평가센터의 기술평가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등록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술평가센터에 기술평가를 의뢰하는 벤처기업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벤처기업들은 재무구조와 같은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면 코스닥시장 등록이 가능했다”며 “그러나 기술평가서를 반드시 구비토록 해 앞으로는 기술력이 있는 벤처기업들만

이 코스닥 등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업협회는 지난해 10월 기술과 사업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벤처기업들의 무분별한 코스닥시장 상장을 예방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벤처기업 등록심사 평가기관으로 선정, 등록희망 기업들에 대해 기술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도록 한 바 있다.

증권업협회는 지난해 7월 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실질심사제도를 강화해 그동안 재무여건 등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상장이 가능했던 것을 질적인 요건도 갖추도록 심사요건을 강화했었다.

증권업협회의 코스닥위원회는 기술평가센터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희망 기업들의 질적인 수준을 평가, 등록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증권업협회는 그러나 △최근 사업년도의 매출액

이 200억원 이상 되는 벤처기업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기술력에 대해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은 경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록심사를 해 주기로 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올해부터 코스닥 등록예정 기업에 대해 기술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술신보 관계자는 “앞으로 코스닥 상장을 위해서는 기술평가센터의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벤처기업들의 코스닥 상장 요건이 한층 강

화됐다고 보면 된다”며 “추후 증권업협회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코스닥시장에 신규 등록된 기업들 가운데 벤처기업이 전체 59%를 차지할 정도로 벤처기업들의 코스닥 진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최근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코스닥시장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코스닥시장 건전화에 위한 발전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생기원, 렌탈 랩 제도 운영

생기원의 렌탈 랩은 연구공간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 및 활용하고자 하는 공용실험실이 너무 멀어 사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생기원 연구공간에 입주해 연구원의 연구장비, 시설등을 직접 활용하는 중소기업전용 연구시설이다.

렌탈 랩을 이용하면 첨단·정밀·고가의 연구장비를 제 때 활용할 수 있다. 생기원의 축적된 경험, 노하우, 유사전공분야 등이 합성된 상승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기업전용연구소로 연구시설 및 공간을 활용해 자생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에 적합하다.

입주업체 선정은 기업에 대해 소정의 심사를 거

친다. 렌탈 랩 임대료는 매월 평당 8,500원에 불과하며 입주계약과 동시에 1년치 임대료를 선납하면 된다.

한 업체당 10평 내외로 입주공간은 제한된다. 전기, 전화 등의 사용료는 사용량에 대해 실비로 부담하고 이들 설비에 대한 설치는 연구원에서 수행한다. 그의 필요한 집기, 비품 등은 업체부담이다. 입주업체는 연구원 공용실험실의 장비사용시 외부업체보다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생기원은 필요시 렌탈 랩의 임대료를 낮출 방침이다.

▶ 이용안내 : 생기원 재무과 (0417)5608-143

공장설립도 전화 한 통화로 끝

‘전화 한 통화로 공장을 설립한다.’

최근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생산공장을 확장하거

나 신규로 공장설립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공장부지 물색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공장설립대행센터를 이용하면 더 이상 공장설립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공장설립대행센터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제조업체들의 원활한 공장설립을 위해 전국 5개 지역에 설치한 대민 서비스 기관.

이 곳을 이용하면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물색에서부터 공장설립 승인 및 공장등록에 이르기까지 인·허가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수수료만 지불하면 일괄처리할 수 있다.

센터에 따르면 준 농림지 등 토지이용규제가 심한 지역의 경우 전문대행사에 위탁해 1천평 규모

의 공장을 설립할 경우 1,000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센터를 이용할 경우 인·허가에 필요한 최소의 수수료만 내면 34명의 전문인력이 공장입지 선정에서부터 모든 제반 업무를 원스톱으로 제공 받을 수 있어 기업들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공장설립센터를 이용하면 공업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10일 이내에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에 공장을 세울 경우 15일, 준농림지역에서 종지와 산지, 하천부지를 이용해 공장을 설립할 경우는 20일 이내에 공장설립 승인절차까지 마칠 수 있다.

<문의 : 02-829-7331/5>

원자력연구, 소형 원적외선 자유전자레이저 개발

크기는 기존 제품의 5분의 1이나 출력은 100만 배나 높은 새로운 개념의 원적외선 자유전자레이저가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한국원자력연구소(소장 장인순) 레이저팀 이종민·정영욱 박사는 5일 마이크로트론을 이용해 미 개척 분야였던 원적외선(테라헤르츠) 영역에서 작동되는 자유전자레이저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레이저는 적외선과 밀리미터파 사이에 있는 파장의 원적외선을 이용한 것으로 출력은 기존 레이저보다 100만배 이상 높은 반면 선폭이 20분의 1 이하로 좁아 성능이 매우 월등하다. 또 전원장치의 전류를 조정하거나 전자빔의

에너지를 변환시키는 방법으로 100~300 μ m 범위에서 자유롭게 변화할 수 있다.

이 소형 원적외선 자유전자레이저는 반도체 특성 향상, 새로운 고집적 반도체 소자 개발, 신소재 개발, 인체 입체촬영, 생명과학연구, 감시장비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이용될 수 있다. 더욱이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구조, 제작비가 낮아 세계 시장을 석권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레이저의 파장영역을 더욱 넓게 확장시키는 한편 수요자 요구에 따라 이 제품을 제작,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극동전선, 미국 케이블시장 공략

극동전선(대표 : 최병철)이 이달중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계기로 미국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 회사는 미국 선박용 케이블, 근거리네트워크(LAN)용 케이블시장 공략에 나서기로 하고 이를 위해 충북 진천의 만승공장 생산설비 증설을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 회사는 특히 연 10억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미국 LAN 케이블시장에 UL마크를 획득한 카테

고리(CAT) 3·4·5·6급을 주력제품으로 공급하는 한편 미국 허벨과의 관계를 강화, 건물내 전력선·통신선 등을 종합 제공하는 구내배선 토털솔루션업체의 이미지를 다지기로 했다.

극동전선은 이외에도 원가절감 차원에서 현재 미국 듀폰이 독점 공급하는 테플론 소재 전선(CMP)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원전선, 화의 종결

전력·통신케이블 등 전선류 종합메이커인 대원전선(대표 : 서명환)이 최근 화의 종결을 받고 경영정상화를 선언했다.

국내 상장기업 화의업체 중 최단시일내에 경영정상화를 되찾게된 대원전선은 지난 '99년 12월 23일 화의채무를 100% 변제, 같은달 24일부터 증권거래소 결정에 의해 관리종목에서 2부종목으로 편재됐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화의 종결은 지난 '98년 엔케이전선이 부도를 낸후 '99년 2월 갑도물산 대표인 서명환 사장이 기업을 인수. 옛 대원전선으로 상호변경과 함께 구조조정에 본격 나서게 된 것이 주효했다.

대원전선은 또 최근에는 광케이블 공장을 증축, 현재 50% 정도 공정을 마친 상태며 LAN(근거리

통신)케이블 열수축튜브 등 특화제품 개발을 통해서도 수익증대 및 매출 극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업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전력케이블 1주일, 통신케이블 납기 10일내 생산완료 시스템구축 ▲다품종 소량 현장납품지원 ▲고객불만 사항 능동적 해소 등 3대원칙을 정해 놓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

한편 대원전선은 2000년 경영방침으로 '신사업 고부가가치 사업에 승부를 건다'로 내걸고 서명환 사장부터 전직원이 30분 일찍 출근, 30분 늦게 퇴근하는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가 올해 세운 매출 목표는 770억원이다.